

“믿음의 경주, 완주를 향해!” 사랑의 캠프 성료

밀알 주최 2025 사랑의캠프
2박 3일간 칼스테이트 롱비치서
“Run for the Prize” 주제로

‘2025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가 6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2박 3일간 칼스테이트 롱비치(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올해 사랑의캠프에는 남가주와 북가주, 캐나다 밴쿠버 밀알 가족들을 비롯해 ANC 온누리교회 장애인 부서와 청년 트랙팀, 멕시코와 과테말라 지부에서 약 370여 명의 장애인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 스태프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캠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봉사자



‘2025년 밀알 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가 6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남가주밀알 선교단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는 취지에서 “Run for the Prize(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김형건 트랙팀 리더의

인도로 본격적인 캠프 일정이 시작됐다. 개회예배는 ANC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 김태정 목사가 인도했으며, 이어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진행되었다.

세족식에서는 봉사자들이 장애인 참가자들의 발을 씻겨주었고, 성찬식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확인했다.

둘째 날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에 이어 실비치(Seal Beach) 해변에서 수영과 산책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캠프 주제인 “Run for the Prize”에 걸맞게, 마라톤·사이클·수영 등으로 구성된 약식 ‘철인삼종경기(Triathlon)’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수상식을 통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저녁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무대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댄스 파티를 즐기며 캠프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또한, 2022년부터 매년 장애인 사역 세미나와 가족초청캠프를 진행해온 멕시코 밀알 후아레스 지부와 과테말라 밀알 가족들도 올해 캠프

에 참여해 밀알과 사랑의캠프 사역이 국제적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각 브랜치별 공연 발표가 이어졌으며, 매년 캠프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돌봐온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에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또한 지난 15년간 사랑의캠프를 위해 헌신해온 트랙팀의 조은송, 정유진 선생에게는 ‘대통령상 Lifetime Award’를 수여했다.

정승원 총신대 전 교수의 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2025년 사랑의캠프가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다.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올해도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기도,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었다”며, “참가자들과 봉사자 모두에게 이번 캠프가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미국인 다수, 학교 내 채플린 지지, 기도는 반대

7월 1일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인의 종교에 대한 관점이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공립학교의 채플린 제도에는 찬성하지만, 교사가 주도하는 학교 기도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6월 27일, 교육과 종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시카고대학교 국립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와 공동으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됐으며, 전국 성인 1,1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다수는 표현의 자유(85%), 종교의 자유(81%), 언론의 자유(77%)를 “매우 중요하다” 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8%는 학생들을 위해 공립학교에 채플린을 두는 것에 찬성했다.

종교 단체별로 보면, 학교 내 채플린 제도에 대해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82%, 비백인 개신교인의 76%, 가톨릭 교인의 61%, 백인 주류 개신교인의 56%가 찬성했다. 반면, 무종교 응답자의 59%는 채플린 제도에 반대했다.

학교 안에 채플린을 두는 것에 대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찬성한 것과 달리, 수업 시간에 교사가 주도하는 기도나 종교 관련 독서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미국인 55%는 공립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반대했다.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72%, 비백인 개신교인 63%, 가톨릭 신자 54%는 교사가 주도하는 기도를 지지하는 반면, 백인 주류 개신교인



©freefik

56%와 무종교 미국인 84%는 반대했다.

응답자의 60%는 공립학교 수업 시간에 개인 기도와 종교 독서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64%와 비백인 개신교인의 57%가 찬성했지만, 가톨릭 신자의 54%, 백인 주류 개신교인의 72%, 무종교인의 76%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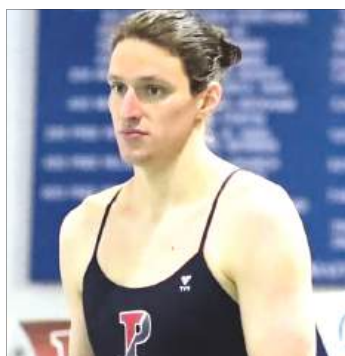
신미셸 기자

유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메달 박탈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인 리아(월) 토마스의 메달을 박탈하고, 그와 경쟁하도록 강요당한 여성 수영 선수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미 교육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토마스를 여성 수영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방교육 수정법 제9조’(Title IX)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타이틀 나인은 미국 연방 교육개정법의 한 조항으로, 교육기관 내 성차별을 금지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선수가 여성 부문에 참가해 얻은 모든 수영 기록과 메달을 박탈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 선수들의 기록을 회복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결의안에 합의했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Lia Thomas). ©구글

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더 이상 남성이 여성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여성 전용 캠퍼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이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선수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낼 계획이다.

신미셸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트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임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이민·비자 USA 이사장
(현)남가주 교외법원의 고문 변호사
(현)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트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리스 뱅크리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창립 50주년 감사예식

“은혜의 50년, 오늘의 감사, 내일의 비전”

1975년 7월 27일 LA 인근 Monterey Park 지역의 한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된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오는 7월 20일 주일 오후 4시, 현 Chino Hills 본당에서, “은혜의 50년, 오늘의 감사, 내일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창립 50주년 감사예식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50년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선한목자교회의 Monterey Park(1975-1995년) 시대는 도약의 시대이다. 걸음마를 내딛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중, 1981년 7월 창립 6주년을 맞아 미국연합장로교단(PCUSA)에 가입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본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갔다. 그리고 1991년 제6대 담임 립형석 목사 부임 이후 교



2025년 선한목자교회 전교인 및 교회 내부. ©선한목자교회

회는 많은 성장을 하였다.

1995년 4월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 선한목자교회는 교회 이전을 결정하였고, 로렌 하이츠에 위치한 미국교회(First Christian Church)를 구입하여, 1995년 7월 이전했다. 몬테레이 파크 시대가 도약의 시대였다면, 로렌 하이츠(1995-2015년) 시대는 성장의 시대였다. 교회 이전 이후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였고, 2004년 4월, 제7대 담임 고태형 목사 부임이후 교회는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인들의 영적

성숙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의 안정기에 접어든 선한목자교회에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다. 2012년부터 미국장로교단의 진보적인 결정들로 인해 결혼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자,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교회는 PCUSA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교단의 은혜로운 결별정책에 따라 순조로이 진행되던 교단변경 절차는 2014년 갑자기 노회가 입장을 바꾸며 큰 어려움에 직



로렌하이츠를 떠나기 전 창립 40주년 기념 단체 사진. ©선한목자교회

면하였다. 결국 교회는 2015년 봄, 95%의 성도들의 찬성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결국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웨슬리안 교단의 도움으로 현재 치노힐스 성전을 구입했고, 2015년 10월 1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한목자교회의 치노힐스(2015-현재) 시대는 성숙의 시기이었다. 2015년 5월 가입한 새로운 교단

ECO(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교회 명칭도 선한목자교회(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of Chino Hills)로 변경하였으며, LA 동부지역에서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

선한목자교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세계선교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고 있다. 이윤준 기자

가정예배, 세상 변화시키는 복음의 시작점

대상 아름다운교회 하신원
최우수상 다우니 아가페 교회
양달승, 사랑의교회 이서연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주최,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주관으로 열린 ‘2025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이 지난 6월 27일(금)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시상식을 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이민 가정의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총 12가정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미주복음방송 김지연 아나운서(‘새롭게 하소서’ 진행)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미주복음방송 김병호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아 감사예배로 문을 열었다.

설교를 맡은 임성진 총장(월드미션대학교)은 어린 시절, 교회가 없던 동네에서 가정예배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교회가 세워졌던 경험을 나누며, “오늘의 가정예배가 지역을 바꾸는 복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사 총평을 전한 최윤정 부총장



2025 우리 집 가정예배 이야기' 공모전 시상식. ©GBC 미주복음방송

(월드미션대학교)은 “가정예배를 평가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예배가 실제로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폈다”며, “이번 공모전은 가정이 영적 전진지가 되고, 전도가 말이 아닌 삶과 예배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영선 사장(미주복음방송)은 “신학교와 언론기관의 연합사역을 통해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가정예배 회복 캠페인의 시작이 되도록, 미주복음방송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상 수상자 하신원 목사는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을 세운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이 넓게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막중하다”는 소감을 밝혔고, 우수상을 수상한 곽수정 사모(LA One Church)는 “신앙생활의 여건이 쉽지 않았던 성장기를 지나며,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늘 꿈이었다”며, “지금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이

다”라고 말했다.

그 외 수상자들은 “예배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인데, 이렇게까지 격려받게 되니 하나님께서 더 잘 지키라고 힘을 주시는 것 같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지킨다면, 가정 안의 많은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간증을 나누었다.

시상식은 남종성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신학부)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다. 수상자들의 인터뷰는 미주복음방송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와 미주복음방송은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더 많은 가정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 세대가 이어지고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사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복음방송 기사 제공

→ 1면 기사 <유엔,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에 이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7월 1일에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준수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여성 스포츠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성명을 게시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 운동부와 관련하여 라커룸,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제공할 경우, 이러한 시설은 성별에 따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각 성별에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이며 여성으로 자신을 밝히기 전에는 윌리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토마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여자 수영 팀에 합류한 후 2022년 여자 수영 기록을 경신하고 전국 챔피언이 되었다. 그는 이전에 3년 동안 남자 수영팀 선수로 활동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남성에게 대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해당 학교가 제9편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3월에 백악관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응하여 UPenn에 대한 자금 지원 1억 7,500만 달러의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일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



김성일 담임목사

스스로 계셨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원웨이교회를 세우시고 구별된 성도들을 모으시고 지난 4년의 시간속에서 원웨이교회와 성도를 예수님을 본받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웨이교회에 김성일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성일 담임목사님 취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감사가 넘치는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에 함께 오셔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원웨이교회를 위해 기도와 사랑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주후2025년 **7월 1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원웨이교회 본당
2120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백상현 내과 건물 2층)
- **문의** : 626-524-3656



“비전 50, 미라클 교회 통해 이뤄지는 선교의 기적”

미라클LA교회 창립 2주년 예배

미라클LA교회(신병욱 목사)가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자라나는 어린 가지의 꿈'(로마서 11:17-20절)을 제목으로 설교한 윤일흠 목사(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4대 담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임을 거듭 강조하며, ‘비전 50’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갈 것을 당부했다.

윤 목사는 미라클LA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며, “믿음이 확실히 있고 진리를 지키려는 종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며 “이전 교단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가셨다”고 말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예레미야 3:15)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신 증거”라고 강조했다.

교회가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



미라클LA교회(신병욱 목사)가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다. ©기독일보

하는 과정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예수님이 유월절 장소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미라클교회 역시 아무런 충돌 없이 이 예배 장소를 허락받았다”며, “겉으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 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했다.

또 그는 예배당 앞마당에 심은 무화과 묘목을 언급하며 “3년이 지나야 열매 맺는 무화과처럼, 이제 시작한 이 교회도 언젠가 풍성한 열매

를 맺을 것”이라고 소망을 전했다.

윤 목사는 미라클LA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하마터면 미아가 될 뻔했던 비전 50이 이 교회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선교의 불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라클LA교회에서 시작해 참여하고 있는 ‘비전 50 선교회’는 현재

까지 18개 국 3천 교회, 4천 목회자, 12만 성도가 회원으로 동역하고 있으며, 앞으로 20여 년 안에 50만 선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비전 50에 참여한 교회들이 모두 부흥했고, 768개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다”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일흠 목사는 “개척 2주년을 맞은 미라클교회는 아직도 가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불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거목이 될 줄 믿는다”고 축복했다.

비전 50 선교회는 50만명 이상의 선교사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함께 이슬람, 공산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모든 선교자원을 동원해 실천하는 선교운동이다. 2024년 기준으로 C국, 말리,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감비아, 말라위,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레데시, 라오스, 태국 등의 나라에 누적 인원 1만 108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미라클LA교회는 2023년 여름에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가 UMC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해 투표를 통해 교단 탈퇴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담임 신병욱 목사가 UMC로부터 교단 추방을 통보받은 이후 세워진 교회이다. UMC의 동성에 수용 등 진보적 성향에 반대해 새 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후 이 교회는 글로벌 감리 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 한미연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교회 주소: 3460 Wilshire Blvd, 7Fl, LA
주일 예배: 10:30 AM
문의: 213-298-3399

장학생 모집

오렌지중앙교회 마감 7/20

오렌지중앙교회(유원선 목사)가 2025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장학사역을 감당해온 오렌지중앙교회는 올해도 총 12명의 학생을 선발해 각 1,000불씩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은 오렌지중앙교회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3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14만 달러 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본 장학사역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고,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가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故 원순애 권사의 섬김이 그 씨앗이 되었다.

미국 소재 2~4년제 대학을 다니는 일반 전공자 혹은 M.div과정을 하고 있는 신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구글폼/교회 홈페이지 방문), 신앙 간증과 장래 희망을 포함한 자기소개서(1~2장/한글 또는 영어로), 추천서 2부(목회자 추천서, 교수 추천서), 성적 증명서이며, 신청

및 서류 제출은 7/20(주일)까지 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8/10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www.orangechurch.org)문의 okec.scholarship@gmail.com

인랜드교회 마감 7/13

인랜드교회는 장래 하나님의 사업, 사회에 기여할 바가 기대되는 자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대학교/신학교 재학생 및 2025년 진학예정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금액은 \$500~\$1,000이며, 크리스천으로, 누적 성적 2.5/4.0 이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서 1부, 추천서 2부, 공인 성적 증명서 1부, 2025년 가을학기 등록증명서 1부(진학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교 합격 증명서),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 1부를 교회 홈페이지(inlandchurch.org)를 통해 7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선교를 잇다, 월드미션대학 신입 동문 환영의 날

월드미션대학교 총동문회에서 6월 29일, 2025년도 신입 동문 환영 및 전·현직 교수님과 만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0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월드미션대학교의 선교적 사명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모임은 첫째, 예배와 환영의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이기영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조현주 동문의 반주와 오하영 동문의 인도로 찬양이 이루어졌으며, 강동완 동문이 기도했다.

송정명 목사(2대 총장)는 “뿌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이어 임성진 총장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2부에서는 이엘렌 동문의 기도로 식사 교제가 이어졌고, 3부에는 승기선 동문의 사회로 ‘교수와 동문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진행됐다. 전·현직 교수의 소개와 함께 신입 동문들의 환영 인사, 동문 사역 소개 영상이 상영되었다.

특히,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사역이 소개되어 큰 감동을 주었다. 음악, 선교, 목회,

교육, 특수사역, 실버사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모습은 신입 동문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다.

행사 중에는 윤성환 명예동문 회장 추대 및 기념품 증정, 교수님과 신입 동문들에게 사랑의 선물 증정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김영순 동문의 특송과 남종성 교수의 격려 말씀, 박제영 동문의 인도로 교가 제창, 김대준 동문의 인도로 합심기도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조셉 리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총동문회 주최 신입 동문 환영의 날. ©기독일보

부제: 교회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삼대 동일 신앙 세우기

삼대 동일 신앙 목회 세미나 (신6:2) 2025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강사 : 김경운 총장

강의시간 안내

오전 10:00 ~ 12:00	삼대가 함께한 세대 통합 예배
오후 12:00 ~ 1:00	점심시간
오후 1:00 ~ 2:45	삼대의 기본 튼튼 신앙 세우기,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오후 2:45 ~ 3:00	Break time
오후 3:00 ~ 4:00	3년 커리 만들기

- 날짜: 2025년 7월 28일(월)
- 장소: LA소망선교교회(김영호 담임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등록: QR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주최: 미주 기독일보, 미주 3대 동일 신앙 연구소(3rd Generation Same Faith Research Center in USA)
문의: 김영호 목사(213-590-9885), 김갑선 목사(213- 407-4524), 기독일보(213-434-1170)

선교사 자녀 후원 위한 아름다운 연합성가합창제

“영적 군사로 자라는 MK, 언어·문화 겸비한 차세대 인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한성준, 이하 연합회)가 주관 및 주최하고 OC교협, OC목사회, OC장협,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등 유관 단체가 공동주최로 함께한 <제37회 연합성가합창제>가 6월 29일 주일 오후 6시에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1300여명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은혜한인교회, 베델교회, 남가주 동신교회, 감사한인교회, 홀러튼장로교회, 실비치 LW한인커뮤니티교회, 어바인 새생명교회 등 OC 지역 일곱 교회와 무궁화합창단, OC 장로성가단, 남가주장로성가단, 베아투스합창단, 레위성가단,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Grand Festival Choir), 라흠 여성 합창단(Rahum Women’s Choir) 등 일곱 합창단 등 합창단원만 8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연합 합창제였다.

참가곡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 찬송가부터 Ken Medema가 작곡한 ‘모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곡들이 선보였다. 소프라노 윤예원씨도 참여해 많은 성가대



〈제37회 연합성가합창제〉가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1300여명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가 합창하는 웅장함부터 섬세한 발성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합창제였다.

합창제는 연합회 증경회장과 이사장, 방송 아나운서로 널리 알려진 윤우경 권사의 진행으로 시작했다.

한성준 회장은 “전도회연합회는 OC지역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위해 교회 성가대와 합창단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합창제의 기금 은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위해 사용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OC전도회연합회 MK장학재단 명예이사장 한기홍 목사는 인사말에서 “해외 선교사와 그 자녀들을 후원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선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후원을 독려했다.

합창제는 첫 순서로 Grand Festival Choir의 “찬양의 소리(Arr. By Tom Fettke)”로 시작해 남가주동신교회 연합성가대의 “성도들이 행

진할 때(Arr. By John Rutter)”로 1부를 마쳤다.

준비위원장 신용 집사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된 선교사 자녀 MK들이야말로 진정한 차세대 인재가 아니겠는가, 연합회는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해 장을 마련했고, 은혜한인교회는 좋은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 일을 완성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다”고 후원 참여를 독려하고 선교사자녀

들의 바램과 감사가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어 세계한인선교사회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해외 한인선교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자녀를 위한 대책인데 전도회연합회의 선교사자녀 장학금이 큰 힘이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 순서는 은혜한인교회 성가대(지휘 윤태중)가 맡았고, 전체 연합합창은 이번 합창제에 참여한 지휘자 중 가장 연장자인 김규삼 목사(LW한인커뮤니티교회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 전 출연자가 무대를 가득 채운 가운데 할렐루야의 웅장한 찬양이 본당을 가득채웠다.

이번 합창제는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연합회는 그동안 5회에 걸쳐 267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133,500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모금된 현금과 10월 13일(월)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현금으로 12월에 여섯 번째 선교사 자녀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회 및 선교사자녀 장학금 후원 문의: 한성준 회장(714-306-5288))
이윤준 기자

교회 단신

▶지오앤디교회 부흥회

싸이프레스(Cypress)에 있는 지오앤디교회(정병규 목사)가 임진혁 목사(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초청해 7월 11(금)~13(주일)에 부흥회를 개최한다.

일시: 7월 11일(금) 7:30 PM
7월 13(주일) 7:00 PM

집회 주소: 3021 Blume Drive, Rossmoor, CA 90720
문의: 714-745-8044

▶월드웨어 USA 〈선교 보고와 우리들의 사역 이야기〉

월드웨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 코너스톤 교회(이종용 목사)에서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40여명을 초청해 교제 모임을 갖는다.

일시: 7월 11일 오전 10시
문의: 323-578-7933
장소: 코너스톤 교회

▶제3회 평강 블레스 콘서트

평강교회는 7월 12일(토) 오후 5시 사우스 파세데나에 위치한 평강교회 본당에서 제3회 평강 블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김미경, 이영희, 김현주,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Joy여성합창단, 셋별중창단 등 출연.

주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문의: 213-393-9136



제9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이강택 목사, 주은재 목사, 홍승민 목사, 송영재 목사 강사로 참여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는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웨스트민스터 성경해석학 교수진과 함께 제9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제자도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난>이며, 이강

택 목사(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주은재 목사(필라델피아 목양교회 담임), 홍승민 목사(브니엘 한인장로교회 담임), 송영재 목사(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임)가 강사로 참여한다.

강좌는 베델교회 본당에서, 7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 오전 6시, 20일(주일) 1-4부 예배 때 진행된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 : 베델교회에서 제9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개최한다. ©베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한 공연

2025.
7.17. ^목
8:00 PM

공연 주소

Cerritos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8000 Park Plaza Dr
Cerritos, CA 90703

티켓 문의

센터메디컬그룹 회원 문의 연락처
월 - 금 / 9 AM - 5 PM
(888) 847 - 3098

SPONSORED by © 센터메디컬그룹

MAD FOR LOVE

조 수 미 단 독 콘 서 트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1인당 1장만 수령 가능합니다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센터메디컬그룹 회원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고통의 문제」 C.S. 루이스의 가치와 유산은?

한국CS루이스센터 개관 기념 '제10차 한국 C.S. 루이스 컨퍼런스' 열려

한국CS루이스센터(소장 심현찬 박사) 개관을 기념하는 '2025 제10차 한국 C.S. 루이스 컨퍼런스'가 6월 30일 서울 예수비전교회(담임 도지원 목사)에서 진행됐다.

미국 워싱턴 트리니티연구원장 겸 창립자인 심현찬 박사는 지난 2022년 세계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의 총본산인 예일대 에드워즈센터에 연구차 방문 중, 케네스 민케마 센터 소장에게서 한국 예일대 에드워즈센터(글로벌 센터) 유치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게 된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서울한영대에 에드워즈센터를 개관했고, 한국CS루이스센터도 그 자매기관으로 창립됐다. 한국 에드워즈센터 개관을 기념하는 제12회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는 지난 23일 열린 바 있다.

소장인 심현찬 박사에 따르면 한국CS루이스센터는 C.S. 루이스를 통한 복음주의적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과 목회를 추구하고, 동시에 교회의 동역자와 차세대를 격려하며, 나아가 갱신과 개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루이스, 변증적·교리적 설득가”
이날 컨퍼런스에선 먼저 송인규 교수(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전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루이스의 변증적·교리적 설득가로서의 면모를 소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순전한 기독교」는 번역판이 아닌 영어본만 하더라도 2001년부터 2016년

제10차 한국 C.S. 루이스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 김진영 기자

까지 350만 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고, 2007년까지의 전체 판매량은 1,100만 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교수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나 성직자도 아닌 한 인물의 기독교 소개서가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일까? 기껏해야 1940년대의 방송 강연으로 출발한 임기응변 성격의 기획물이 이제는 거의 (다소 시기상조적 판정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고전의 반열에 오를 것일까?”라며 “그 비결은 루이스가 탁월한 설득가라는 점에서, 또 ‘순전한 기독교’는 루이스의 그런 역량이 최대화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certainty)과 온전성(integrity)을 견지하도록 자극한다 △우리로 오늘날 사람들의 질문과 회의와 반박에 대해 책임성 있게 응수해야 한다 △오늘날의 변증가와 교사들은 메시지와 미디어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했다.

악과 죄,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날 또 다른 강사로 나선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및 한국어부 학장)는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의 가치와 유산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루이스는 이 책에서 악과 죄,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심이 가득하며, 온갖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상실감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루이스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탁월한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매우 열정적이고, 끈질긴 사랑이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의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고통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범한 죄악으로 인해 초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 물론 이것은 고통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고통은 그 자체로 당연히 나쁜 것이며, 종말론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다
양한 사건들 (예를 들어 요셉의 사
건, 욥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

난)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큰 선, 더 위대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합목적적 섭리 가운데 허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리를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루이스의 일곱 가지 지혜와 유산

한국CS루이스센터 및 한국에일대조나단에드워즈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심현찬 박사는 C. S. 루이스의 현대적 가치와 유산에 대해 발표했다. 심 박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상실한 시대”라며 “이런 현대 성도와 교회에게 루이스의 통찰과 지혜, 나아가 그의 가치와 유산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했다. 심 박사는 루이스의 유산으로 △만남과 우정 △순전한 복음의 변증 △복음 언어의 연금술과 대중 설교 △깊은 영성 △고통과 기쁨의 순례 △소명과 섬김 △통합의 경건의 7가지를 제시했다.

심 박사는 “루이스는 경건과 신학을 겸비한 ‘20세기 영적 거장이자 아이콘’이다. 패키가 지적했던, 현대 복음주의가 겪고 있는 영적 난장이 영성을 치료하고 영적 거인으로 나아가는 한 길은 바로 루이스적 통합과 균형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상실의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루이스적 일곱 가지 지혜요 그의 가치와 유산을 배우고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날 컨퍼런스에선 정성호 교수(중앙대 영문학과 명예교수)가 「나니아 연대기」의 가치와 유산, 김기호 교수(한동대)가 「스크루테일의 편지」의 가치와 유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진영 기자



송인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김진영 기자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 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 korean.masters@biola.edu

🏠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의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p>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p>	 <p>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p>	 <p>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p>	 <p>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p>	 <p>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p>	 <p>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p>
 <p>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p>	 <p>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p>	 <p>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p>	 <p>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p>	 <p>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p>	 <p>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p>
 <p>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p>	 <p>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p>	 <p>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p>	 <p>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p>	 <p>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p>	 <p>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p>
 <p>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p>	 <p>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p>	 <p>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p>	 <p>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p>	 <p>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p>	 <p>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p>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군대 전역 후 산불을 냈다,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내려티브 설교" 제3강: 내려티브 설교를 위한 사전 준비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생각하라, 선입견을 버리고 내용 자체에 집중하라, 경전이 아니라 문학책 읽듯 읽어라, 성경책 외에 다른 도구-아이패드 등-를 사용하라. 번역본을 달리해서 읽어라, 시간대, 장소를 달리해서 읽어라, 사건과 내용이 머릿 속에 그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읽어라,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김귀보 목사 초청 내려티브 설교 세미나가 6월 9~10일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김 목사는, 첫째, 둘째 강의에 이어 세 번째 강의에서, 성경 본문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기존 해석들과 신학적 이해들이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한 다며, 기존 선입견을 배제하고 마치 그 본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읽듯,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내는 그 작업이 내려티브 설교의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마엘 출생 이후 아브라함에게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며, 그 시간의 공백이 가지는 의



김귀보 목사 초청 내려티브 설교 세미나가 6월 9~10일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를 설명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셨다. 이는 단순한 시간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창 16:16, 17:1)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그의 고백을 듣 기도 전에 달려와 안아주고, 옷과 반지를 입히는 장면을 언급하며, "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가 없다.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뒤,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전역 후 어머니와 다툼 후, 논두렁을 태우러 나갔다가 불이 옮겨붙어, 산불을 냈던 사건을 회고했다. 마을 방송으로 산불이 났다고 알리고, 한바탕 마을에 난리가 난 후, 아버지께 크게 책망을 듣게 될 것을 각오하고 잔뜩 긴장한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아버

지는 그에게, "집에 들어가 쉬어라"라는 한 마디를 하셨을 뿐이었다. 다음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온 동네를 분주하게 뛰어다니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오랜 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는 안식 후 첫날, 세 여인들이 매우 일찍 해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장면에서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읽어냈고, 늘 사람들 눈을 피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피해다녔던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간 장면에서, 그 여인의 변화를 읽어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법궤 이동 장면에서 옷사가 법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 운반 규정을 어겼기 때문'(민 4:15, 7:9)이라고 보는 전통적 해석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던 옷사가, 법궤 운반 행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는 자신이 기독권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니엘 9장 19절,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에 나오는 '주여'를 세 번 외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기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내려티브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 네 가지를 제시했다.

- 1) 반드시 성경 본문에 해석의 근거가 나와야 한다.
- 2) 원독자/원청자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석하면 안된다. 마크 포웰(Mark Powell) 교수에 따르면, "내재된 독자가 안다고 전제된 건 모두 알아야 한다. 독자가 모른다고 전제하는 것은 모두 잊어야 한다."
- 3) 내려티브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상을 허용한다.
- 4)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내러티브 설교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가라는 질문에, 한인성도들의 기대를 고려해 적용과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디 한 기자

“아프리카 기독교인 대상으로 한 폭력 급증”

국제기독교연대(IC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DRC), 케냐 등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격, 납치, 학살, 강제 이주가 급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프리카 내 기독교인 박해 심화: 우려되는 추세'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25년 첫 4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며 지난 20년간 폭력적인 경향도 추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DRC, 케냐에서의 폭력적인 사건들을 상세히 다루며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오펜도어가 발표한 2025년 기독교박해국 목록에서 7위에 올라있다.

ICC 보고서는 200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보고하람,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풀라니 무장세력 등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 4만5천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다고 지적했다.

2022년 한 해에만 나이지리아에서 5천여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약 1만1천명에서 1만2천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2천여곳이 넘는 교회가 파괴되었다. 2021년에는 약 3천8백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되었다.

2023년 볼라 티누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치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7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무슬림인 티누부 대통령은 보다 균형 잡힌 행정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이 시행되고 기독교인들이 매우 취약한 나이지리아 북부

와 중부 지역에서 더욱 그러했다.

콩고민주공화국(DRC)도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더 위험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DRC는 2025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41위에서 35위로 상승했으며, 이는 ISIS와 연계된 연합민주군(ADF)의 폭력적인 활동 때문이었다. 2025년 2월, ADF는 교회 예배 중 70명의 기독교인을 참수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DRC의 북키부아와 이투리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폭력을 피해 이주했으며, 마을과 병원 등이 불타는 사건도 발생했다. 2025년 3월, 킨데라 마을에서의 공격으로 19명이 사망하고 여러 건물이 불에 타는 사건도 있었다. 1월에는 마코코와 마사쿠키 마을에서 53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 케냐는 전통적으로 박해 보고에서 중심이 아니었으나, 최근 동북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샤바브의 주요 표적이 돼, 교회 활동 제한과 기독



아프리카의 교인들(상기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Pixabay

교인에 대한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임바사, 가리사, 만데라, 라무 지역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들과 선교사들이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고 있다.

알샤바브는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살폭탄 테러와 암살 등을 자행하고 있다. 또 한 2024년 오로모 해방군이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넘어와 두 명의 한 국인 선교사를 납치한 사건도 발생

했다. 이는 케냐 내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도 시급하다. 2025년 3월 11일,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결의안 220호를 발의해 아프리카 내 기독교인 박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외교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미경 기자

CONGRATS, GRADUATES!

APU	MICA	RUTGERS	UC BERKELEY	UCI	U OF I URBANA
BIOLA	MOUNT ST MARY'S	SANTA CLARA UNIVERSITY	UC DAVIS	UCSD	UNIVERSITY OF PITTSBURG
BOSTON UNIVERSITY	NORTHEASTERN	SCAD	UC MERCED	UCSB	U OF M TWIN CITIES
DREXEL UNIVERSITY	NYU	ST LAWRENCE UNIVERSITY	UC RIVERSIDE	UCSC	U OF WASHINGTON
FORDHAM UNIVERSITY	PARSONS	SYRACUSE	UC SANTA CRUZ	U OF ARIZONA FLAGSTAFF	UNIVERSITY OF THE PACIFIC
LMU	PEPPERDINE	TEMPLE	UCLA	U OF I CHICAGO	VIRGINIA TECH

**Now Enrolling for the
2025-2026 School Year!**
(213) 487-5437
ncahuskies.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기독교인 학살 공포 확산



나이지리아 현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예르와타 마을에서 풀라니 목동 무장세력이 6월 13~14일 (이하 현지시각) 양일간 기독교인을 공격해 최대 200명이 숨졌다고 크리스천 포스트(CP)가 29일 보도했다. 마쿠르디교구 정의개발평화재단(FJDP)은 사망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P는 희생자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매 네 명, 조카 셋, 할머니까지 모두 잃었다”며 “그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에 더 사랑하신다. 평생 그리워할 것이다”고 눈물을 삼켰다고 밝혔다.

현지 사제들에 따르면, 이날 저녁 경찰이 예르와타 성 요셉 성당을 지키며 피난민 700명을 보호했지만, 무장세력은 시장으로 이동해 피난민 숙소 문에 불을 지르고 총격을 가해 500명 이상이 잠들어 있던 지역을 공격했다. 사제들은 “시신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아기부터 부모까지 불에 타 알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CP는 기독교인을 공격한 사람들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고 밝혔다. 가톨릭 사제 우쿠마 조나단 앙베안베는 “공격자는 분명 풀라니족이었다”며 “경찰이 성당은 지켰지만 시장을 지킬 장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CP는 지난주 구마곤 요그보 마을에서 총격과 살인이 이어져 주민들은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무장 풀라니 민병대가 마을 외곽에서 무기를 소지한 채 기독교인

농지에서 소를 방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23일에는 요그보 마을 기독교 농민이 살해됐다.

유수푸 투라키 목사(나이지리아 기독교교회 전 부회장)는 “풀라니 무장세력의 학살은 단순한 목동-농민 분쟁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겨냥한 전쟁”이라며 “국방·안보 수장이 모두 풀라니 무슬림인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페테코스탈 교단 존슨 솔레이만 목사는 “베누에주의 참상은 악랄하고 야만적”이라 했고, 이사 엘-부바 목사도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봐야 행동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영국 APPG 보고서는 일부 풀라니 무장세력이 보코하람, ISWAP처럼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중부 벨트 기독교 공동체를 몰아내고 이슬람화를 추진한다고 분석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감시목록(WWL)에 따르면 2025년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박해 심각국 7위에 올랐고, 전 세계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4476명 중 31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내 반기독교 폭력 수치는 이미 WWL 평가 기준상 최대치”라며, 북부에서는 보코하람과 ISWAP이, 남부에는 라쿠라와 같은 신생 지하디스트 조직까지 가세해 폭력과 납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승연 기자

남아공 갱 전쟁 속 희망 심는 목사... “누구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NGO단체 ‘시스파이어(Ceasefire)’ 팀의 크레이브 엔겔 목사. ©BBC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지역인 케이프플랫츠한노버파크에서 크레이브 엔겔 목사와 그의 NGO단체 ‘시스파이어(Ceasefire)’팀이 갱 폭력 중재 사역을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BBC 아프리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노버파크는 실업자 청년들로 가득하고 총성과 훙기 사건이 일상처럼 울려 퍼지는 곳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 최고 부유 도시 중 하나이지만 살인율은 국가 평균의 두 배인 인구 10만명당 70명으로, 2024년 첫 3개월간 웨스턴케이프에서만 263건의 갱단 살인이 일어났고 희생자 중 어린이가 79명에 달했다.

엔겔 목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놀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다”

며 “전직 갱단원들을 중재자로 세워, 폭력을 ‘질병’처럼 탐지·차단·의식을 변화시키는 접근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의 팀원 중 한 명은 12세에 갱단에 들어가 18년간 활동했고, 30여 명의 친구를 잃었지만 회심 후 공동체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사람들은 네가 변해야 존경한다”고 말했다.

CDI는 시스파이어가 시 예산 삭감으로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 휴전 협상 중에도 여성과 어린이가 희생되는 등 평화는 며칠밖에 지속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엔겔 목사는 “나도 가족을 잃었지만 멈출 수 없다. 이 사회를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도 정부도 아닌 공동체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누구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부예배(토) 오전 10:00 분당

O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부예배(토)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동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중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길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수요찬양 오전 11: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교육부)세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유영희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미국인 52% “교사가 예수님 언급하며 기도하는 수업 찬성”

©pixabay

대부분의 미국인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기도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주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는 학교에서의 기독교 기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해를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 미국 성인 3만6천9백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24 종교 환경 연구’(Religious Landscape Study)에서 수집된 응답을 기반으로 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인의 52%는 교사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기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27%는 강력히 찬성했다. 반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6%는 교사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기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22%는 강력히 반대했다.

퓨리서치 센터의 집 로틀로 연구원은 분석에서 “22개 주에서 교사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기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성인이 반대하는 성인보다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1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교사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기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반대하는 성인이 찬성하는 성인보다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나머지 16개 주는 분열되어 있으며, 교사가 학생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언급하는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학교 기도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피주(81%)였고, 그 다음으로 앨라배마주(75%), 아칸소주(75%), 루이지애나주(74%), 사우스캐롤라이나주(71%), 켄터키주(67%), 오클라호마주(67%), 웨스트버지니아주(67%), 테네시주(66%), 사우스다코타주(65%), 조지아주(63%), 노스캐롤라이나주(61%), 노스다코타주(61%), 텍사스주(61%) 순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기도를 명시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한 주에서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 차이로 득표했다.

인디애나(58%), 캔자스(58%), 미주리(57%), 플로리다(56%), 델라웨어(56%), 네브래스카(56%), 와이오밍(56%), 아이다호(55%), 뉴멕시코(54%), 애리조나(53%), 미시간(53%), 오하이오(53%)의 성인 중 더 적은 숫자의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자들이 명시적으로 기독교적 학교 기도를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학교 기도를 지지하는 주들 중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표를 던졌다. 델라웨어와 뉴멕시코 두 주는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고, 애리조나주와 미시간주는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기독교 학교 기도 문제에 대해 거의 균등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2024년 선거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지지했던 버지니아는 조사 대상자의 52%가 기독교 학교 기도를 지지했고, 46%는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아이오와와 근소한 차이로 지지했던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성인의 51%가 기독교 학교 기도를 지지했고, 46%는 반대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

했던 메릴랜드 주 성인의 50%는 기독교 학교 기도를 지지했고, 48%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합주인 네바다와 민주당 주인 로드아일랜드에서도 같은 비율의 성인이 학교 기도를 지지했지만, 49%는 지지하지 않았다. 공화당 주인 알래스카에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기독교 학교 기도에 반대했고, 49%가 지지했다. 민주당 성향의 하와이주에서는 성인의 50%가 기독교 학교 기도에 반대하는 반면, 46%는 지지했다. 공화당 성향의 몬태나주와 공화당 성향의 위스콘신주에서는 기독교 학교 기도에 반대하는 비율이 51%, 지지하는 비율이 47%로 나타났다.

명백한 기독교적인 학교 기도에 대한 반대는 워싱턴 D.C.(69%)에서 가장 강했고, 그 다음으로 오리건(65%), 버몬트(64%), 워싱턴(61%), 코네티컷(60%), 뉴햄프셔(60%), 미네소타(59%), 매사추세츠(58%), 콜로라도(58%), 캘리포니아(56%), 메인(55%), 유타(54%), 일리노이(54%), 뉴저지(53%), 뉴욕(53%) 순이었다.

뉴햄프셔, 뉴저지, 미네소타, 메인주는 해리스 전 부통령을 극소수로 지지했지만, 기독교 학교 기도에 대한 반대 가장 강했던 주에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로 지지했다. 로틀로는 “교사가 주도하는 기독교 기도는 종교가 공립학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신에 대한 기도를 하되 특정 종교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미국인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표명했다(57%).

하지만 연구자들은 “두 질문 모두에서 주 차원의 패턴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학교 기도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했던 주는 미시시피(77%), 아칸소(76%), 앨라배마(74%), 루이지애나(74%), 사우스캐롤라이나(74%), 테네시(69%) 등 공화당 지지 주였다.

애리조나(59%), 캔자스(59%), 아이다호(58%), 미주리(58%), 미시간(57%), 뉴멕시코(57%), 오하이오(57%), 아이오와(56%), 펜실베이니아(56%), 버지니아(56%), 네바다(55%), 로드아일랜드(55%), 유타(55%), 알래스카(54%), 메릴랜드(54%)의 성인 중 소수가 일반적인 학교 기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 중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였고, 뉴멕시코와 버지니아는 해리스 전 부통령을 근소하게 지지했으며, 로드아일랜드와 메릴랜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비종교적 학교 기도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코네티컷주와 민주당 성향이 약간 강한 미네소타주 모두 성인의 51%가 일반적인 학교 기도에 반대했고, 46%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인 학교 기도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한 주는 버몬트주(55%), 콜로라도주(56%), 워싱턴주(56%), 뉴햄프셔주(57%), 워싱턴 D.C.(60%), 오리건주(63%)뿐이었다. 뉴햄프셔주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학교 기도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모든 주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이미경 기자

美 기독교인 75% “민주당 신뢰하지 않아”



©pixabay

미국 내 기독교인 대부분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으며, 민주당이 신앙에 적대적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진보 성향 복음주의운동단체인 ‘보트 커먼 굿’(Vote Common Good)은 기독교 유권자들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담은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1천7백61명의 기독교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체인지 리서치’(Change Research)가 실시했다. 표본 오차 범위는 ±3%p다.

여론조사의 전체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유권자의 75%가 민주당을 거의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중 절반(50%)은 종교가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 62%는 민주당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58%는 민주당이 기독교에 적대적이라고 평가했고, 54%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이라고 답했다.

기독교 유권자의 70%는 공화당이 기독교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했고, 응답자의 72%는 공화당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트 커먼 굿의 설립자이자 미니애폴리스의 솔로몬스 포치(Solomon’s Porch)교회 더그 파짓(Doug Pagitt) 목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다수종교인 기독교 유권자들을 외면하는 한, 민주당은 결코 다수당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후보들은 기독교 유권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 오지 않았다”며 “정치적 메시지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4년 대선 이후 기독교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의 문화연구센터(Cultural Research Center) 데이터에 따르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기독교 유권자의 56%의 지지를 얻었으며, 대부분의 기독교 하위 집단에서도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대선 출구조사에서는 개신교인 및 기타 기독교인 유권자의 63%, 가톨릭교인 유권자의 59%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는 각각 36%와 39%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보트 커먼 굿 측은 여전히 민주당이 기독교 유권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인 응답자 중 31%는 ‘기독교 정체성이 낮음’(low Christian identity) 이들로 분류됐다. 이들은 신앙이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가치관 및 자아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이다. 이들 중 49%는 민주당 성향, 40%는 공화당 성향, 11%는 무당파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권자층으로 해석된다. 더그 파짓 목사는 “이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일정 부분 기독교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PCA, 신임 총회장에 케빈 드영 목사 선출



케빈 드영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장로회(PCA)가 최근 2025년 총회에서 케빈 드영(Kevin DeYoung)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PCA 교단지 ‘바이 페이스’(byFaith)를 인용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매튜스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커버넌트(Christ Covenant)교회 케빈 드영 목사가 테네시주 채너누가에서 진행 중인 PCA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드영 목사는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드영 목사의 동료인 제이슨 헬로폴로스(Jason Helopolous) 목사는 지명 연설에서 “드영 목사는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도 ‘명확함’과 ‘신념’을 지키는 인물”이라며 “교회와 성경을 사랑하고, 타협 없

이 진리를 말하며, 그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동한다”고 밝혔다. 드영 목사는 원래 미국 개혁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2015년 PCA로 소속 교단을 변경하며,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신학에 대한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현재 아내와 9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드영 목사는 동성애 문제를 포함한 교회 내외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2012년 CP에 기고한 글에서는 교단들이 명확한 신학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교단은 자신이 고수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가 존엄성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셸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각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오후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이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노영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토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초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7월 19일 엔젤 스타디움

美 대형 전도 집회 하베스트 크루세이드가 7월 19일(토) 오후 7시에 애나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모든 좌석은 선착순이며 harvest.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35년 넘게 진행되어 온 이 행사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음악, 특별 게스트, 그렉 로리 목사의 메시지로 구성되며,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 순서도 마련된다. 이 행사는 매년 지역 연합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이번 행사에는 복음송 가수 크리스 톰린, 힐송의 워십리더이자 “What A Beautiful Name”, “A Thousand Hallelujahs”, “Ho-sanna” 의 작곡가인 브룩 리거트우드(Brooke Ligertwood), “The Blessing”으로 알려진 예배 인도자인 카리 조베 카네스(Kari Jobe Carnes)와 코디 카네스(Cody Carnes), We The Kingdom 등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며, harvest.org 에서 온라인 스트리밍도 가능하다.



美 대법, 메릴랜드주 ‘동성애 수업 거부권’ 인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6대 3의 판결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의 정책을 뒤집고, 학부모가 자녀를 성소수자 관련 수업에서 제외시킬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CBN뉴스는 “이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학부모의 종교적·윤리적 권리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학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양육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공립학교 정책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학부모가 성소수자 관련 동화책을 읽는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는 권리(Opt-out)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해당 학부모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부모 측에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인정해, 학부모가 해당 수업에서 자녀를 일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2022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 흑인 트랜스젠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나의 무지개(My Rainbow)’, 삼촌의 동성결혼을 다룬 동화 ‘바비 삼촌의 결혼식(Uncle Bobby’s Wedding)’, 가족과 반려견이 쿼어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인 ‘프라이드 퍼피(Pride Puppy)’ 등을 도입했다.

또한 일부 책에서는 3~4세 유아에게 ‘인터섹스 깃발’, ‘드래그퀸’, ‘가족’, ‘숙곳’ 등의 단어를 찾게 하거나, 유명 성소수자 운동가이자

UNCLE BOBBY’S WEDDING

PRIDE PUPPY!

몽고메리 카운티는 2022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 LGBT 관련 도서들을 도입해 왔다.

매춘부의 이름이 포함된 단어 목록에서 이미지를 찾는 과제를 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은 “이러한 수업이 신앙과 충돌한다”며 “종교적 이유로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7세 아이는 아직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항의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해당 수업은 성교육이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 교육이다. 또 종교적 민원을 다 반영하면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긴다”며 “성교육 외에는 학생들을 수업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등 대법관 6명은 다수 의견에서 “정부가 종교적 양육에 실질적으로 간섭하는 정책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 등은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이다.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모

든 내용을 차단하면, 공교육은 역할을 상실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와 학부모의 권리를 지킨 역사적 승리다. 아이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드래그퀸 이야기를 부모 동의 없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진보 진영 및 교육단체들은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기준을 강요하게 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포괄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이 판결을 축하했다. 리버티 카운슬 맷 스테이버(Mat Staver) 회장은 “미국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지도하고 복지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공립학교가 자녀의 등교를 위해 가족에게 종교적 신념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주의 부모는 모든 교육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교육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B T 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SCAN ME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TALK BTSSolar

진유철 칼럼

고임은 썩고 흐름은 생명을 만든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구약의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앗시리아를 정복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긴 느브갓네살 왕은 당대 세계최대의 도시 바벨론과 세계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했습니다. 인간역사에서 보아도 웅감한 영웅이며 지략이 있어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아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느브갓네살 왕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정확히 해석해 주십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이후 은으로 된 메대와 페르시아, 놋으로 된 헬라 그리스, 쇠로 된 로마와 그리고 쇠와 진

흙이 섞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대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모든 제국을 박살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깨달은 느브갓네살 왕은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만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Not I But Christ와 같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년 쯤 지나면서 자기를 위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녹조 해결하듯,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흐름 만들기 원하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만하다가 그만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고 홀연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생명의 흐름’을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금 수저 흙 수저가 있고, 건강하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모두가 똑같으면 ‘흐름’은 없고 ‘고임’만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고임’은 곧 ‘썩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에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한 태풍으로 녹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흐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있기 마련인데, ‘생명의 흐름’을 통해 불공평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죽은 사해 바다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성전에서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물고기가 가득해지고 주변이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질이나 흐르는 은사와 봉사에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희생하며 손해보고 섬기는 것은 억울한 일이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땅이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흐르게 하고, 기도가 흐르게 하고, 사랑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서 나와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롬!

하늘바라기



https://unsplash.com/LER ZENG

나아 오라 - 김은주

거기 너 서 있는가
눈빛을 주어도 틈이 없고
마음을 주어도 느끼지 못해
애처로이 바라만 보겠는가

거기 너 앉아 있는가
그리움의 소리를 높이고
사랑의 소리를 외치는데
먼 하늘만 바라겠는가

나와 오라
함께 가자
하늘이 노래하고
만물이 춤을 추는
마음의 성전으로 나아오라
주님이 동행하시리

한남옥 칼럼

헬리 클라우드의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



한 남 옥 권사
시인, 수필가
나성영락교회 권사

‘마음에도 뼈가 있다면, 그 뼈는 관계에서 부러진다’

누군가에게 외면받고, 밀어내지 않았는데 밀려났다는 느낌, 거절당했다는 느낌, 그 조각들이 쌓여 내면에 금이 가고,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된다.

헬리 클라우드는 이런 부서진 마음들을 오랜 세월 상담하고, 치유의 길로 안내해 온 임상 심리학자이자 목회자다. ‘경계선’ 시리즈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던 그는, 이 책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코칭’을 통해 신앙의 시선으로 내면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코칭의 언어를 들려준다.

그는 먼저 건강한 성장에는 세 가지 기초

가 있다고 말한다. 사람받는 관계 안에 머물기,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경계 세우기, 그리고 현실을 수용하며 완전함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신앙도 이 세 기초 위에서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위로와 방향을 주는 살아 있는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연약한 나 자신으로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서적 대상 항상성(emotional object constancy)’에 대한 설명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완벽한 환경인 모태로부터 벗어나, 정서적인 고립상태에서 엄마를 찾게 된다. 엄마의 돌봄이 아기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정서적 대상 항상성’의 단계로 발전한다. 엄마가 안 보여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그 사람의 사랑과 존재감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했던 이들은 이 능력이 약해 어른이 되어서도 고립감과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헬리 클라우드는 이 개념을 신앙과 연결시키며, 하나님과의

정서적 대상 항상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인간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자녀가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그 근원에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경계도 회복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다. 한국 여성들 대부분은 자식에게나 남편에게 헌신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자신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동체에서도 바른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자. 클라우드는 경계를 세우는 일이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경계란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켜내는 문이다.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거절하라.” 이 문장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준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무게는 종종 우리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내몬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거듭 말

한다.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되고, 수용은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론 지독히도 부족한 존재다. 나는 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완전함이 아닌, 의지와 믿음의 작은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책의 마지막은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된다.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 “내가 맡긴 삶을, 너는 살고 있느냐?”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선택과 목소리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으로 독자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

이 책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 관계에 지친 이들, 방황하는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기독교 상담학부 때 읽은 이 책은, 때론 묵상집처럼, 때론 상담자처럼 곁에 머물며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코칭하고 계신다.”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케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교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 aa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i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

오전 9:30
오전 11:15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화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교육부예배
목요예배
토요새벽예배

오전 12:00
오전 12:00
오전 7:30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목요종보기도회
새벽예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8:00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오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310)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목요종보기도회
https://www.facebook.com/chkho69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7:3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오전 11:00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성경공부(목)
셀모임(금)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11:00
오후 7:00
오후 7:00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주일 2부
새벽예배
수요성경공부
금요일예배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5:30(화-금), 6:30(토)
오후 7:30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EM/교육부
새벽예배
금요성구강구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6:00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토요비전새벽기도회

오전 11:00
저녁 7:00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9:30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어른식예배
금요일기도회

오후 12:30
오후 3:00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TEE성경공부

낮 12:00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교회학교 & 유스예배
수요나눔 교역자
수요종보기도

오전 12:50
주일 오후 12:50
오전 9:30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7:30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토요일아침기도회

오후 12:00
오전 6:00(화-금)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전 7:00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성경공부
목요일예배
청년부
수요(론리안) 새벽기도

오전 8:00
오전 11:00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2:00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전 7:00
오전 5:3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목요일예배
청년부
수요(론리안) 새벽기도

오전 8:00
오전 11:00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7:30
오전 6:00(토)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11:00
오전 8:00
오후 9:00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아침기도회(온라인)
기도모임

오전 11:30
오후 1:30
오전 7:00(화-토)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금요성경기도회
청년부
수요(론리안) 새벽기도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후 8:15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나눔 코이 모임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목요종보기도

오후 2: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나눔 코이 모임

오후 1:00
오전 6:00(화-토)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전 10:30
오후 7:30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일예배
목요일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저녁 7:30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예배 3부
주요예배
파워워십 2번주 금요일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아)

오전 11:00(요청시)
오후 1:30
오후 1:30
오전 8:00(한아) / 금요일 오후 8:00 (영아)
목요일 오후 8:00(영아) / 4번주 목요일 오후 8:00(영아)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12:27)

김영한 칼럼

예수 죽음의 의미-대속(代贖)의 죽음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담대표

3) 신적 폭력으로서의 자기 비움: 발터 벤야민의 해석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유대계 독일인으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문학평론가이며 철학자이다. 그의 사상은 게르숨 솔렐의 유대교 신비주의와 베르톨트 브레히트로부터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한 비판이론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도 관련이 있다. 그는 「폭력 비판에 관하여」(Zur Kritik der Gewalt)에서 폭력이 지닌 다양한 양태들을 기술하고 폭력을 통해 그 폭력이 모두 말살되는 “신적 폭력”(die göttliche Gewalt)을 말한다. 그가 여기서 신적 폭력에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

던 자기 비움의 힘(권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독특한 착상이다.

자연법 안에서 폭력 내지 권력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된다.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폭력은 사용되기 때문이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법의 전제다: “그것(자연법)의 관점에 따르면... 폭력은 자연적 소산이다. 즉,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의 사람들이 폭력을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재료이다.”

이에 반해 실정법(實定法)의 경우 폭력은 수단을 통해 평가된다. 실정법의 경우 폭력은 인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연법은 목적의 정당성을 통해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며, 실정법은 수단을 정당화함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을 보증하려고 노력한다.”

벤야민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분 안에서 폭력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구분한다. 첫 번째 폭력은 법 정립적 폭력(rechtsetzende Gewalt)이다. 이것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리를 기준으로 인정받는 폭력이다. 예를 들면, 쿠데타, 사회주의 혁명, 테러 등이다. 두 번째 폭력은 법 보존적 폭

력(rechterhaltende Gewalt)이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행사되는 폭력이다. 경찰력이나 군대력 등 기존 세력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이다. 벤야민은 현대에 이르러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이 뚜렷한 구분을 가지 못할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았다. 경찰의 강제력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적합한 폭력과 적합하지 않는 폭력의 구분이 애매하게 된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는 폭력이 어쩔 수 없는 삶의 요소로 등장한다. 이러한 폭력의 사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에 질문에 대해 벤야민은 이 둘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폭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세 번째 폭력인 신적 폭력이다.

신적 폭력은 모든 폭력을 잠재우는 폭력이다. 신적 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 그 목적들에 대해 정당화된 수단이 될 수도 없고, 정당화되지 않은 수단도 될 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그 목적들에 대해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다르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폭력”이다. 이 폭력은 일상적 수단과 목적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차원, 즉 신적 차원으로부터 도래하

는 폭력이다.

벤야민에 의하면 신적 폭력은 다신론 시대에 창궐했던 무자비한 신화적 폭력과 다르다. 예를 들면 신화적 폭력이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친 헬라클레스의 폭력적 살인 혹은 복수에 눈이 먼 테베의 분노의 복수 등을 의미한다.

신화적 폭력은 신들의 의지가 그 안에서 투영되어 폭력의 목적과 수단을 정당화하며, 그럼으로써 신들의 의지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신화적 폭력은 목적과 수단이 신적 차원으로 고양되어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일관적 폭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전히 인간의 삶 안에 법을 정초하는 모습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정립적 폭력과 다른 것이 없다.

“직접적 폭력의 신화적 발현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모든 법적 폭력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반해서 신적 폭력이란 신화적 폭력을 넘어서는 직접적 폭력으로서 폭력 자체들을 종언시키는 폭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폭력이라 바로 이 신적 폭력으로서 권력이나 무력의 사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비움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기존하는 모든 폭력을 종식시켰다. (계속)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성도여 다 함께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어느 교회에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Steinway Grand Piano)를 드러놓게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예배 담당 장로님이 분당 오른쪽 코너에 설치를 하려 하자 이를 본 담임 목사가님이 왼쪽 코너에 설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쟁점이 되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당회의 회의 안건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위 예화는 어느 교회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듣고 필자가 직접 구성한 내용입니다. 사실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예배드림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력(Church Year)이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 언급된 교회력도 있지만, 직접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중 사순절, 성령강림절, 삼위일체 주일, 대림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규정은 없지만(Adiaphora) 그 절기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것을 통해 성도들의 성화 되는 삶을 확신하게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의 전통은 서방교회에는 성령강림 일주일 후, 동방 교회는 성령강림 주일로 지키며 10세기경 비숍 스테판 리에지(Bishop Stephen of Liège)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성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올해 삼위일체 주일은 6월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중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말씀을 종결하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3”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좌시하지 않고 복음의 절대성을 그

리고 성도의 바른 삶을 표현하기 위해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권면으로 삼위일체의 명확성을 표현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나타내며, 구원의 모든 과정에 각 위격이 함께 일하심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성도여 다 함께(Come Christian join to sing)”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크리스천 헨리 베이트먼(C. H. Bateman, 1819-1883)이 작사했습니다.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모라비안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0세에 회중교회로 교단을 옮겼고, 마침내 56세에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 찬송가를 쓴 것은 1843년 회중교회 신자일 때였습니다.

이 찬송을 윤창호 작곡가가 편곡해서 찬송안뎌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절을 활용하여 변주해 가며 조성을 3번 상승시키며(G, Ab, A)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가사는 주 하나님을 삼위로 변화시켜 삼위일체 찬양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여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혼돈의 핵심인 복

음의 변질, 그리고 삼위에 대한 절대성이 희박해지는 그 고린도 지방 크리스천들에게 바른 복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계몽하려 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핍박이 종식된 이후 일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대두되었던 가장 핵심 이슈는 교회의 오랫동안 교회의 핍박 가운데 변질되어 버린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당성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 5세기까지는 예배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을 그들의 예배에서 중요한 핵심으로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백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론을 모호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거나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지할 때, 예배에 있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주 내용이 되고 찬양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삼위일체 주일은 특별히 이 일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삼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 삼위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서울 (310) 538-3333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TOP7 LIVE IN LA

미스터트롯3

추길 손빈아 김용빈 추혁진 천록담 남승민 최재명

2025. 8. 24(일) 2PM, 6:30PM

WILSHIRE EBELL THEATRE 월셔 이벨 극장

TICKET OPEN

chosunticket.com | 🔍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LA 티켓 예매 (213)459-6800 | (213)315-5177



미스터트롯3

Top7과 떠나는 크루즈여행

8월 25일<월> ~ 29일<금> 4박 5일

손빈아 천록담 김용빈 추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SHOW. SHOW. SHOW. 미스터트롯 선상 갈라쇼, 멕시코 전통쇼, 탈렌트쇼

“푸짐한 경품잔치”

CARNIVAL RADIANCE

탈렌트쇼 & 가라오케쇼

멕시코 문화센터
마리아치밴드와 민속공연 관람

선상 스페셜이벤트 (오후)

미스터트롯3 프리미엄 선상 공연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항공권, 마사지체어, 알라스카 크루즈 등)

▶ 요금: 오션뷰 **\$1,799**
발코니 **\$1,999**

▶ 포함: 4박 5일 크루즈 비용, 세금일체(포트세, 정부세), 기항지 투어(2일) + 프라이빗쇼 관람 및 행사, 크루즈 보험
*1인당/ 2인1실 기준 *예약시 완납, 캔슬시 패널티 적용



여행의 명문 -
ELITE TOUR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 이해하기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 이해하고 인식하며 조망하기



역사를 구속하다

번 S. 포이트레스
이여진 역 | 생명의말씀사
320쪽 | 20,000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자가 밝히듯,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과거에서 배우고, 과거에
관해 다음 세대에 이야기해
주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인 에드워드 H. 카(Edward H. t Carr, 1892~1982)는 자신의 대표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라고 정의했다. 역사는 우리와 늘 함께한다.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변할 수 있다.

일반은총: 사람, 사건, 의미

『역사를 구속하다』 저자 번 포이트레스(Vern S. Poythress)는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성경적 관점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번 포이트레스는 보편적으로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첫째 사람, 둘째 사건, 셋째 의미이다.

역사는 사람에 의해 사건이라는 행동으로 규정되고, 규정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논리실증주의와 같은 관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와 사건의 다양성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이해하려 한다.

저자는 성경이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완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

저자는 역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근거를 하나님에 두고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친히 간섭하셨고, 역사의 간섭은 인간이 행한 행동에 따른 사건과,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를 기억하고, 과거를 통해 배우며, 미래 세대를 향해 과거의 의미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대한 기억과 배움과 기념을 강조함에 있어, 번 포이트레스는 조직신학적 신론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기 때문에 각 세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창조하신 세계를 구속하고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론과 인죄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세계관

사건을 이루는 재료는 사람과 의미이다. 이 재료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통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사람, 사건, 의미’라는 세 가지 관점은 ‘상황적 관점, 실존적 관점, 규범적 관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실존적 관점이 사람이라면, 상황적 관점은 사건, 규범적 관점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세 관점은 서로 맞물리며 서로 간에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관점은 서로 조화를 통해 더욱 나은 역사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조화롭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세 관점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 포이트레스는 삼위일체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통일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이 하나의 통일성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기독교 역사관

번 포이트레스는 『역사를 구속하다』 책을 통해 기독교 역사관(세계관)을 정의하고자 한다. 번 포이트레스는 성경에 의해 형성되고, 성경에 의해 점검받는 관점임을 강조한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과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 그리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번 포이트레스는 하나님께



▲◎픽사베이

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하고 완성하시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정의한다.

이런 성경적 역사관과 반대되는 개념인 마르크스주의와 논리실증주의 같은 접근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역사를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함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함을 말한다. 번 포이트레스는 역사를 성경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과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조와

방향을 구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론과 의미로 무장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은 바로 성경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역사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식하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7월의 연가 - 강태광

모퉁이 돌아
반환점 지났습니다

새로운 맘으로
새 노래 읊조리며

첫 반을 보내고
또 반을 맞이하는

새 길을 재촉하는
7월의 기운

설렘 가득한
7월의 아침

전환점 돌아
7월을 시작합니다

아쉬웠던 일들은
모퉁이에 내려 놓고



시인 강태광(월드쉐어 USA대표) 목사는 크리스천 문학으로 등단했고 <불청객> 등 시집과 <기독교 문학 산책>을 비롯해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를 펴냈다. 월드쉐어 USA 대표로 활동하며 빈곤, 전쟁 등으로 고통 당하는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다.

龍谷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씨너스: 죄인들〉 (1)

〈씨너스: 죄인들〉, 흑인 성가대 찬송 버린 뮤지션 이야기

단순 뱀파이어 영화 볼 수 없어
평단과 대중 다 호평, 흥행 성공
서아프리카 흑인 종교 전통과
노예제 종교적 심성 주는 영향
흑인 성가대 찬송 대신 블루스
선택하는 목회자 아들 주인공

블루스 뮤지션을 삶의 목표로 삼는 목회자 아들

지난 5월 28일 개봉작 〈씨너스: 죄인들〉은 뱀파이어 영화로, 1930년대 초 대공황의 여파가 미국 전역을 강타하던 무렵 남부 미시시피주를 배경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 작품은 꽤 심층적인 문화적 함의와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에, 단순 뱀파이어 영화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씨너스: 죄인들〉은 흑인과 유색인종을 향한 차별의 실상과 당시 미국 남부 흑인 공동체의 종교적·문화적 특색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제1차 세계대전과 광란의 1920년대, 그리고 대공황을 거친 당대 미국의 사회적 혼란상을 예리하게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요소도 훌륭하게 녹아들어 있다.

〈씨너스: 죄인들〉은 이런 감점들이 어우러진 덕에 미국에서 평단과 대중 양측으로부터 대호평을 받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제작비 9천만 달러를 들여 북미 박스오피스 및 월드 박스오피스 전체 6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 통상 홍보비가 제작비만큼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 대비 세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작품에서 눈여겨볼 비평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첫째는 서구 기독교 문화 및 오컬티즘과 기괴하게 어우러진 서아프리카 흑인 종교 전통, 둘째는 노예제의 굴레가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이 영화에서 전면에 부각되는 서아프

리카 흑인 종교 전통은 블루스(blues)와 후두교(hoodoo)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을 맡은 쌍둥이 형제 스모크 무어와 스택 무어, 그리고 두 사람의 사촌 새미 무어가 등장한다. 스모크와 스택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광란의 1920년대 시카고 폭력조직에 들어가 밀주를 유통하는 일을 하다 남부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얻은 밀주를 갖고 흑인들과 유색인 이민자들을 위한 주점을 연다.

새미는 목회자의 아들로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새미의 아버지 제터다이어 목사는 아들 새미가 블루스 음악에 빠져 신앙생활을 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는 아들에게 죄인들의 음악인 블루스를 버리고 다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새미의 마음은 블루스로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새미는 스모크와 스택이 개장한 주점에서 놀라운 기타 연주와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재능을 빛낸다. 이날을 기점으로 새미는 블루스의 마력을 좇아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한다.

사촌 스모크는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목회를 돕고 교회 음악을 만들며 살라고 하지만, 새미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블루스 축제의 분위기에 취한 상태라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새미의 이런 결심은 그날 밤 뱀파이어의 습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더욱 확고해진다. 교회에서는 존재를 부정하는 뱀파이어들이 실제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후두교의 비방이나 유럽 뱀파이어 전설에 나오는 뱀파이어 퇴치법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 등을 보면서, 새미는 교회 안에서만 초자연적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된다.

흑인 성가대 찬송과 블루스, 서로 다른 종교적·영적 지향점

블루스의 직접적 기원은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의 노동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농장 노동자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은 폴 앤드 리스폰스(call and response, 리더의 독창 후 여러 사람들이 후렴 부분을 합창하는 노동요) 형식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서아프리카 토속음악의 형식을 본딴 것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필드 할러(field holler, 노동 현장에서 다른 흑인들이 들을 수 있게 부르는 독창)라는 새로운 형태의 흑인 음악이 생겨난다. 필드 할러는 기존 노동요와 달리 독창 형식을 갖췄으며, 노동요보다 훨씬 개



영화 〈씨너스: 죄인들〉은 1930년대 초,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했던 미시시피주에서 술집을 연 두 흑인 형제들과 뱀파이어의 전투를 주된 서사로 삼는 작품이다.

인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토로하는 노래였다. 훗날 폴 앤드 리스폰스는 주로 흑인 성가대 찬송가 형식에 큰 영향을 줬고, 필드 할러는 주로 블루스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흑인들의 성가대 찬송과 블루스는 모두 비참한 노예생활의 애환, 울분, 그리고 고통을 담아낸다. 다만 그 고난을 해결하는 접근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흑인들의 성가대 찬송이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흑인들이 겪었던 사회적 차별, 육체적 고통,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한다면, 블루스는 하소연과 뉘트리를 통해 심적 고통과 울분, 몸의 고단함을 달래려는 목표를 갖는다.

그래서 순수하게 음악적 측면으로만 보자면, 흑인 성가대 찬송보다 블루스 쪽이 훨씬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한다. 물론 흑인 성가대에도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가진 이들이 많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 최상위 음악적 재능을 갖춘 이들 상당수는 그 재능으로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그리하여 사회적 차별과 소외로 응어리진 울분을 풀어내기 위해 블루스에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흑인 성가대 찬송은 합창을 통해 서로 음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이 주는 위로감 자체를 향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음악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지라, 음악성이 조금 떨어져도 충분히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블루스는 인간의 감정을 밀바닥으로부터 휘어잡는 극한의 음악적 역량이 뒷받침돼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다. 게다가 독창이 기본이기에, 뮤지션에게 천부적인 가창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블루스는 흑인 뮤지션 가운데서도 최상위 재능을 갖춘

이들이 뛰어들어 발전시킨 음악 장르라 볼 수 있다.

물론 흑인 성가대 찬송과 블루스는 서로의 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흑인들의 독창용 가스펠 중에는 블루스 형식과 창법을 따르는 것들이 많고, 1940년대 이후 등장한 리듬 앤 블루스는 블루스의 형식과 의도를 계승하면서 흑인 성가대 찬송의 화음과 가스펠 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블루스는 흑인 성가대 찬송이나 가스펠과 정서 및 동기에서 종교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흑인 찬송은 교회 회중을 향하지만 블루스는 이름 모를 청자, 자기 운명 혹은 죽은 부모나 가족을 향한 곡이 대부분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블루스의 청자는 우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씨너스: 죄인들〉에서 새미의 아버지 제터다이어 목사는 블루스를 '죄인들의 음악'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블루스는 현대 미국 대중음악의 핵심을 이루는 리듬 앤 블루스와 로큰롤의 직접적 기원이다. 그리고 블루스는 한국 대중음악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 주류가 된 R&B(1960년대 이후 리듬 앤 블루스를 통상 그 이전과 구별해 R&B라고 함)의 뿌리가 바로 미국 남부 흑인들의 블루스다.

영화 〈씨너스: 죄인들〉은 현대 대중음악의 뿌리가 된 블루스에 담긴 흑인들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경험들에 대한 헌사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미국 흑인 음악의 두 초월적 지향점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인간의 삶을 읊아매는 운명과 주변인들에게 몰입하는 이교적 종교성의 발로를 정당화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계속〉



흑인 성가대 찬송은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흑인들이 겪었던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도록 한다. ©purdue.edu

앞서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레귤레이션

\$40

부터 시작

\$2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황 20회 (혈액순환)
- 훈육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